

주제	문법 심화 탐구		
가이드	<p>탐구 주제: '이중 피동'을 둘러싼 맞춤법과 문법학자들의 견해 차이</p>		
	<p style="text-align: center;">'이중 피동'을 둘러싼 맞춤법과 문법학자들의 견해 차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data-bbox="416 869 603 1843"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제 선정 근거</td> <td data-bbox="603 869 1337 1843"> <p>'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예를 들면 '보여지다', '잊혀지다', '되어지다'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비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동의 뜻이 중복되어 의미가 모호해지고, 표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서는 문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 이중 피동 표현이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주장하기도 한다.</p> <p>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문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주제를 선정해 탐구를 진행했다.</p> </td> </tr> </table>	주제 선정 근거	<p>'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예를 들면 '보여지다', '잊혀지다', '되어지다'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비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동의 뜻이 중복되어 의미가 모호해지고, 표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서는 문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 이중 피동 표현이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주장하기도 한다.</p> <p>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문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주제를 선정해 탐구를 진행했다.</p>
	주제 선정 근거	<p>'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예를 들면 '보여지다', '잊혀지다', '되어지다'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비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동의 뜻이 중복되어 의미가 모호해지고, 표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서는 문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 이중 피동 표현이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도 주장하기도 한다.</p> <p>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문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주제를 선정해 탐구를 진행했다.</p>	
정의	<p>'이중 피동'이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나 접어가 두 번 연결된 표현으로, 피동어와 피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피동의 피동' 혹은 '두 번의 피동'이라는 의</p>		

	<p>미를 가지게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p> <p>일반적인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행동의 수신자로서 기능하지만, 이중 피동에서는 주어가 두 번의 피동 구조에 포함되어 더욱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p> <p>예를 들어, "그 사람은 도둑에게 지갑을 훔쳐졌다"라는 문장에서 "그 사람"은 주어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처럼 이중 피동 구조는 주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주어에게 강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두 번 쓰인 경우 예) 묻혀지다, 놓여지다, 잡혀지다 2.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와 피동 접어 '-아/어지다'가 결합된 경우 예) 보여지다, 잊혀지다, 쓰여지다 3. 피동 의미를 가진 동사 '되다, 당하다' 등과 피동 접어 '-아/어지다'가 결합된 경우 예) 되어지다, 당해지다, 죽어지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중 피동이 잘못 사용된 사례</p>	<p>"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건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p> <p>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만난 여우와 나누는 대화에 등장하는 '길들여지다'는 낱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길들다'의 사동사 '길들이다'에 피동의 뜻이 있는 보조 동사 '(어)지다'가 붙은 형태기 때문이다. 비슷한 형식의 피동사로 형용사 '밝다'의 사동사 '밝히다'에 '(어)지다'를 붙여서 만든 '밝혀지다'가 있다.</p> <p>그러나 <어린 왕자>에서 '관계를 맺다'의 뜻으로 '길들이다'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길들여지다'를 쓴 것은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길들다'에는 이미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길들여지다'로 쓸</p>

	<p>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왕자 속 '길들여지다'라는 표현을 '길들다'로 바꾸어도 자연스럽게 읽힐 것이다.</p> <p>이중 피동은 간결한 표현에 어긋난다. 피동의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미나 접미사가 붙게 된다. 예를 들어, '잊혀지다'는 '잊히다'나 '잊어지다'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p>
이중 피동 문제점	<p>또한, 이중 피동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피동형과 피동사는 각각 다른 용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동형은 수동태를 나타내고, 피동사는 자동사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이다'는 자동사로 '눈에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지다'는 피동사로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혼합하는 것은 의미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p>
이중 피동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p>흔히 이중 피동 혹은 중첩 피동이라 부르는 '보여지다, 잊혀지다, 찢겨지다'와 같이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다시 '-어지다'를 갖는 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도 있고 '보이다'류와 '보여지다'류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학자는 '보여지다'류는 피동사에 '-어지다'를 추가하여 '피동성의 강조나 '과정성의 부가'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p>
이중 피동 표현을 둘러싼 언어 현상	<p>이중 피동 표현은 한국어의 언어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부 문법학자는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사투리, 존칭, 강조 등의 언어 습관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p>
결론	<p>이중 피동 표현은 한국어의 흥미로운 언어 현상 중 하나로, 맞춤법과 문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 피동 표현은 피동의 의미가 두 번 반복되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에 어긋나는 비문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피동의 뜻을 강조하거나, 피동의 주체를 은폐하거나, 피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법학자들</p>

	<p>도 있다. 또한 이중 피동 표현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어의 변화와 혁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은 단순히 잘못된 표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피동과 사동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의 언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
<p>참고문헌</p>	<p>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이중피동 구분법)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61911 [맞춤법검사기] 능동? 피동? 헛갈리는 문장 구조 북라이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625514&memberNo=49135716 '길들여지다'는 '길들다'로, '잊혀진'도 이제 그만. (2021, September 7).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900</p>

* 해당 가이드를 활용하여, 규민 학생의 관점에서 탐구 보고서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